

# LG화학-호남석유화학에 투자하라!

미래에셋, 석유화학 “비중확대” ... 중국 투자지연에 복미 가동률 하락

미래에셋증권은 10월23일 석유화학산업이 2006년까지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하며 투자의견으로 <비중확대>를 제시했다.

미래에셋증권 박영훈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대규모 석유화학 설비 투자계획이 상당수 2008년 이후로 지연됨에 따라 2002-2006년 세계 에틸렌 생산능력 증가율은 세계 GDP 성장률보다 낮은 연평균 3.0% 수준에 그쳐 타이트한 수급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석유화학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중국에서 신규 생산설비 건설지연에 따른 공급부족이 심화돼 2007년까지 수입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아시아지역 시황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 것으로 전망했다.

천연가스를 주 원료로 사용하는 북미지역의 석유화학산업은 원가부담이 가중되면서 에틸렌 설비 가동률이 낮아져 세계적인 석유화학제품 수급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됐다.

박영훈 선임연구원은 또한 석유화학산업의 호황기가 200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중국의 대규모 석유화학 설비 완공시점이 2005-2006년이었으나 설비투자가 지연되고 있고 2006년까지 계획된 전세계 에틸렌 설비 신증설량도 GDP 성장률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석유화학산업의 Peak 시기는 2006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투자 유망종목으로는 LG석유화학(목표가 3만5000원), LG화학(목표가 6만6000원), 호남석유화학(목표가 5만원)을 제시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0/24>